

영광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회 개최

2023년도 장기임대사업신청자 6개소 중 2개소 선정

농업인과 함께 농기계임대사업소 만들기 발전방안 모색

영광군은 지난 8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군의 농업기계화 촉진과 발전방안 모색으로 '2023년도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회의에 앞서 2023~2024년도 심의위원 직무를 도맡은 농업인단체장으로 구성된 위촉직 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전수하였으며, '2023년도 주산작물 일관기계화 지원 사업 장기임대

사업 2개소 선정'심의안을 상정·의결하였다. 심의결과로는 2023년도 장기임대사업신청자 6개소 중 2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선정결과는 영광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장기임대대상자 선정에 앞서 사전준비로 서류심사, 현지조사, 보조사업 수혜여부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평가항목에 영광군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청년·여성농업인 동참과

동부재배 면적비율을 가산점으로 두어 사업내 실화를 기하였다.

회의 마무리 시점에 2023년도 농기계 임대사업 발전방안 논의와 2024년도 국도비 확보, 동부분소 설치, 중장기 발전 계획수립, 공모사업 발굴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토의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분야 대전환'을 모색하였다.

심의위원장인 농업기술센터 교육자 소장은 "주산작물 장기임대농기계는 장기임대대상자의 개인의 것이 아니라 참여농가와 주변 소농들 다수에게 과중·수확작업의 기계화 재배를 돕게끔 목적에 맞게 잘 활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기자



영암군, 제17기 찾아가는 실버대학 입학식

수강생 100여 명 참석...소외된 읍면 어르신 학습 기회 부여·여가활동 지원



영암군은 9일 영암군 노인복지회관에서 실버대학 수강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17기 찾아가는 실버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실버대학'은 '찾아가는 노인대학'에서 올해부터 명칭을 변경하여 문화와

교육 혜택에서 소외된 읍면 지역 어르신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부여하고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현대사회와 노인의 역할 ▲행복한 노년생활 만들기 ▲스마트폰 활용법 ▲유튜브 촬영 등 교양과 건강, 창작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다.

찾아가는 실버대학은 이날 입학식을 시작으로 8개월간 운영되며, 매월 11개 읍면을 순회하며 월 1회 2시간씩 읍·면 노인복지회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이어간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지역의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즐거움과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어르신 복지를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히며, "젊은 영암을 만들어 가는 데에는 어르신들의 삶의 지혜 역시 필요하다. 함께 도와 더욱 발전하는 영암을 향해 나아가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군 관계자는 "노인대학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어르신들이 활력 넘치는 삶을 꾸리고 품격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기자

함평군, 만감류 재배농가 현장 중심 기술교육 나서

농가별 기술수준 맞는 맞춤형 교육

함평군이 만감류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기술 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만감류 재배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만감류 재배기술 정립을 위해 마련됐다.

최근 만감류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주로 제주도에 국한됐던 만감류 재배지가 전남 등 내륙으로 점차 확대 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0.4ha에 불과하던 관내 만감류 재배면적이 현재 4.3ha까지 증가했다.

이에 군은 만감류 재배 농가를 순회하며 품종별 특성에 맞는 전정요령, 월별 생육 관리법 등 농가별 기술 수준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제



공할 방침이다.

박은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만감류 특성 상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선 생육 단계별 재배 환경관리가 중요하다"며 "고품질 만감류 생산을 위해 농가별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기자

신안군 지역자활센터, '장산점카페' 3호점 오픈

장산축항 여객선터미널 내 카페조성...관광객·주민 휴식공간 기대

신안군은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자활기금을 지원하여 장산 여객선터미널 내 '장산점카페 3호점'을 지난 2월에 오픈하여 관광객·주민의 소풍 및 휴식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2014년 1004카페 군청점(1호점)을 시작으로 증도점카페(2호점)에 이어 올해 개점한 장산점카페(3호점)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신안군 자활기금 37,600천원, 센터 자부담비 6,213천원 등 총 43,813천원을 투입하여 리모델링 공사 및 커피머신 등 장비를 설치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 3명(수급자 및 차상위) 전문 커피바리스타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 카페운영을 위한 자활사업 참여자로 근무



하게 하고, 본격적인 카페 개시를 위해 일주일 간 장산면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무료 시음회 행사를 진행하여 카페 오픈 홍보에 나섰다.

신안=이덕주기자

일본 김관련 5개 단체, 목포 김 가공공장 방문

목포시, 일본 방문단에게 김산업 중심도시의 면모 선보여

목포시는 지난 13일 일본 수산청 및 김관련 5개 단체가 대양산단의 김 가공공장 2곳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수산청과 대사관, 영사관, 일본 전국김가공 협동조합연합회, 전국김도매 협동조합연합회 등을 비롯해 9명의 관계자가 목포의 김 가공공장을 방문했다.

방문단은 목포 대양산단의 만전식품(주)와 ㈜해농 해양캠퍼스 두 곳을 방문해 김 가공 제

조공정과 시설 등을 살펴보고 마른김의 품질을 확인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방문단의 한 관계자는 "목포의 마른김은 위생적이고 최신의 설비를 갖추고 있어 품질 좋은 김제품이 나오는 것 같다"며 "최근 일본의 김 생산량이 감소해 마른김 수입 물량 확보 등에 관심이 컸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이번 일본 방문에 이어 14일에는 우리나라 김을 수입하는 중국 베이징 제경도국제무역유



한회사 관계자 4명도 목포의 김제품에 관심을 갖고 대양산단의 김 가공공장을 방문하기로 했다. 목포시는 일본 김관련 5개 단체의 방문과 중국 무역회사 방문을 통해서 김산업 중심도시의 면모를 선보여 대일·대중 수출 증가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